

군산시 200억 투입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특별위 심의 최종 통과...2017년까지 대대적 정비

근대 역사경관 조성·주민 참여프로그램 시행·건축행위 제한

군산시가 관광서 이전과 신시가지 형성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벗어나 주민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최근 창조적 상생을 통한 근대역사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재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시는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한 주민 주도적·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참여해 지난 5월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1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원도심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근대건축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 ▲상가활성화 기

반조성 ▲지역기업 상생클러스터 구축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건축 보전·정비 연계 주거재생사업’은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근대역사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가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역기업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해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한 공간마련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주민 주도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선도지역내 행위제한 지역에서 그동안 군산시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가꾸어온 근대문화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 건축물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승희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곡성 내일 성탄절 축하 공연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섬진강 도깨비마을(총장 김성범)과 광주연시안 요넬클럽 공연이 20일 오후 5시 곡성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도깨비마을의 인형극을 활용한 창작동요를 비롯해 광주연시안 요넬클럽의 성가와 개릴, 요넬송, 스위스의 각종 악기연주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김성범(52) 총장은 “성탄을 맞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용기를 북돋우는 공연을 마련했다”면서 “모쪼록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에서 자생한 문화예술단체인 (사)섬진강 도깨비마을은 섬진강변에 6만여평의 공원과 120여평의 전시관·공연장을 갖췄으며, 올해 본사회적 기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문의(061-363-953)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집으로 만든 작품 신기하네” 이환주(오른쪽에서 2번째) 남원시장과 주민들이 지난 17일 남원시 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남원시 집품공예 전시회’를 찾아 집품으로 만든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산동면 부절리 노인회 집품공예팀이 만든 20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서양 송로버섯’ 인공 배양 성공

(트러플·세계 3대 식재료)

맛·향 좋아 100g에 수백만원

국내선 미발견...농가 소득 기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8일 “새로운 임산버섯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트러플(Truffle=서양 송로·사진)’의 인공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러플(서양 송로)’은 서양 송로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딱딱나무속 땅속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버섯이다.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로 맛과 향이 뛰어나 가격이 100g당 수백만 원을 넘는 매우 진귀한 버섯이다.

버섯 색깔에 따라 ‘블랙 트러플’과 ‘화이트 트러플’로 나뉘며, 최근에는 화이트 트러플이 맛과 향이 더 우수하다고 전해지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트러플은 유럽, 중국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자연에 의존한 재배법으로 그 생산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새로운 임산버섯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최근 유럽에서 직접 채취해온 자연산 트러플을 이용, 여러 가지 배지 및 배

양 조건을 달리해 인공 배양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트러플 인공재배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국내 새로운 임산버섯 소득원 개발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전남 임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석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우량 품질의 트러플 균종을 개발하고, 더 나은 재배 기술을 연구해 농가의 소득 창출 및 트러플의 대중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마리아 전문인력 128명 양성

목포해양대서 선박수리 등 교육

내년에도 120명 추가 선발

전남도는 18일 “요트관광 활성화와 그 기반이 되는 마리아항만 운영 등을 위해 목포해양대 주관으로 마리아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해 올해 12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마리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마리아항만 운영, 레저선박 운항, 레저선박 정비·수리 등 3개 과정으로 상반기(5~6월)와 하반기(10~11월)로 나눠 2회에 걸쳐 실시됐다.

마리아 양성교육은 일반인, 학생(고등학교·대학생), 관련 분야 재직자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레저선박 운항 분야는 해기사면허 또는 요트

보트 조종면허 취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목포해양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에서 신청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은 목포해양대에서, 실습 및 현장교육은 전남 요트면허시험장, 한성디젤기공, 중소조선연구원 등에서 60시간 이상 분야별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마리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5년에도 목포해양대 주관으로 120여 명의 마리아 전문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을 주관한 목포해양대는 올 2월 해수부 공모를 통해 마리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억5000만원씩의 교육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과농협 박상철 조합장 대통령 표창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상’



옥과농협 박상철(사진) 조합장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옥과농협을 위한 농촌사랑 운동을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4년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한 옥과농협 관내 마을과 1사·1촌 기업인 (주)중앙고속이 기업·단체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게 돼 겹경사의 영예를 안았다.

박 조합장은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농업·농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사업’과 ‘도·농간 교류기

반을 조성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발히 펼쳐 소비자와 생산자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은 물론 일손돕기 노력지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 소비자들이 매년 3000~4000명씩 농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신안 법사랑위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법사랑위원 신안지구회(회장 문용희)가 지난 16일 (재)1004성 신안장학회(이사장 강찬선)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문용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지역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 법사랑위원 신안지구회는 지역내 범죄 예방활동 전개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등 범죄예방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재)1004성 신안장학회 강찬선 이사장은 “미래자산인 지역교육 발전을 위



해 기탁해 준 장학금은 지역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품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현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회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아찔장 주기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